

신이주신현재의생은더없이귀중한생이다.

오늘 보석상 아버지는 더없이 귀중한 그의 보석들을 보고 있다. 이것은 더없이 귀중한 알로킧한 보석들이 모인 궁정이다. 보석 하나하나가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하다. 현재 세상의 모든 재산을 다 쌓아놓거나 세상의 보물을 다 모아도 신의 보석은 하나하나가 그 전체보다 훨씬 더 값지다. 보석인 너희들 중 하나 앞에서 세상의 보물 전체는 아무 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더없이 값진 보석들이다. 합류시대 말고는 사이클의 다른 어느 때에도 더없이 귀중한 보석인 너희를 찾아볼 수 없다. 황금시대의 신인 영혼들의 배역은 합류시대의 더없이 귀중한 신의 보석들의 배역 다음이며, 둘째다. 지금 현재 너희는 신의 자녀들인 반면 황금시대에는 너희가 신인들의 자녀일 것이다. 신의 이름, 찬양, 탄생, 행위가 모든 것들 중에서 최고로 고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의 자녀인 신성한 보석들, 즉 영혼들의 가치는 최고로 높다. 이 고귀한 칭송과 드높은 가치의 기념물은 오늘날까지도 아홉 보석의 형태로 기억되고 숭배된다. 아홉 가지 보석은 여러 다양한 장애들을 없애는 파괴자로 기억된다. 어떤 장애에 직면했는지에 따라 그들은 상황에 맞는 반지를 만들어 끼거나 펜던트로 만들어 목에 걸거나, 또는 특정한 그 보석을 장식 형태로 만들어 집안에 둔다. 너희의 마지막 생인 지금도 너희는 장애의 파괴자의 형태로 된 너희의 기념물을 볼 수 있다. 너희는 반드시 등수가 매겨지지만, 등수대로이면서도 너희들은 모두 더없이 귀중하며 장애의 파괴자들이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영혼들은 보석인 너희들을 고귀한 형태로 존중한다. 그들은 극진한 사랑을 갖고 그것들 (너희의 상들)을 청결하고 정성스럽게 돌보는데 왜냐하면 비록 너희는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을지라도 아버지는 영혼인 너희 모두를 가치 있게 만들어서 그에게 속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는 나의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받아들였다. 신이 눈길을 준 영혼은 신의 시선을 받음으로써 반드시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해진다. 신의 드리시티로 인해서 그런 영혼은 반드시 영적 세계, 신이 창조한 세계의 고귀한 영혼이 된다. 신성함의 주님(파라스나트, 연금술사)과 함께 하게 되면 너희는 틀림없이 돌(파라스, 연금술사의 돌)에 물든다. 너희들은 신의 사랑의 드리시티를 받기 때문에 너희의 기념물은 전체 사이클 내내 존재한다. 살아 있는 신인의 형태로 또는 반 사이클 동안 살아 있지 않은 상이나 여러 기념물의 형태로 또는 보석인 너희들의 어떤 형태의 기념물로든, 너희의 기념물은 심지어 별의 형태로까지 있다. 너희의 기념물이 어떤 형태이든 너희는 전 사이클 내내 모든 이에게 사랑 받아 왔는데, 왜냐하면 불멸하는 사랑의 대양인 분의 사랑 넘치는 드리시티는 너희가 전체 사이클 동안 사랑 받을 권리를 갖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신봉자들은 단 한 순간, 혹은 반 순간만이라도 일별하기를, 그래서 저 너머로 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한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받는 사랑의 눈길은 너희가 불멸하는 사랑을 받을 가치 있게 만든다. 너희는 자동적으로 불멸의 성취를 얻는다. 그는 사랑으로 너희를 기억하고, 사랑으로 너희를 거두며, 사랑으로 너희를 본다.

둘째는 깨끗함, 즉 순수성이다. 지금 이때에 너희들은 아버지에게서 타고난 권리로 순수성을 얻는다. 너희 본래의 종교가 순수성, 즉 깨끗함이라는 것을 너희는 안다. 너희가 순수성을 채택했기 때문에 너희의 기념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든 순수성과 깨끗함이 기념물로 계속 존재한다. 반 사이클 동안 순수한 부양과 순수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반 사이클 동안 순수성을 통해서 태어나 순수성으로 부양되며, 반 사이클 동안은 순수성으로 숭배된다.

셋째로 그는 마음에 극진한 사랑을 담아서 너희를 돌본다, 그는 너희를 고귀하고 더없이

귀중하다 여기며 돌본다. 지금 이때에는 신이 친히 어머니와 아버지의 형태로 너희 자녀들을 돌보기 때문이다, 즉 부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에 대한 부양이 불멸하고 너희들이 불멸의 사랑으로 돌보아지기 때문에 전체 사이클 내내 너희는 대단한 왕족다운 기쁨, 사랑, 존중심으로 보살핌을 받는다. 너희들은 그런 사랑, 깨끗함, 순수성, 애정으로 영원히 보살핌 받을 가치가 있게 된다.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해하느냐? 보석 하나하나가 참으로 가치가 높다! 그래서 오늘 보석상 아버지는 각각의 보석들의 가치를 보고 있었다. 세상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전부 한편에 있어도 너희 다섯 판다바들은 그 수많은 영혼들보다 더 강력하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들이 너희들 중 단 한 명만 못하다, 너희는 그 정도로 강력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토록 귀중해졌다. 너희의 가치를 아느냐? 아니면 때때로 너희 스스로를 잊느냐? 너희 자신을 망각하면 너희는 괴로워진다. 너희 스스로를 망각하지 마라. 항상 너희 자신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계속 전진하되, 작은 실수도 저지르지 마라. 너희들은 더없이 귀중한데, 너희가 귀중한 것은 아버지의 동반 덕분이다. 만일 아버지를 잊고 단지 너희 자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너희를 창조한 분을 잊지 마라.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너희를 창조한 분을 통해서였다.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방법을 잊는다면 그 경우엔 이해가 일종의 몰지각함으로 변한다. 그러면 “나”라는 의식이 생긴다. 방법을 잊음으로써 너희는 성공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한즉 너희가 더없이 귀중하다는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알고 세계의 조상이 되어라. 또 너희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괴로워지는 일은 없게 해라. “나는 아무 것도 아니다” “오직 나만이 모든 것이다”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마라. 둘 다 잘못이다. “나는 그러하지만 나를 창조한 분이 그렇게 만드셨다.” 너희가 아버지를 지워버리면 그것은 죄가 된다. 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죄가 없다.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죄라는 이름이나 흔적이 없고, 죄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는 이름이나 흔적이 없다. 이처럼 너희의 가치를 이해하느냐?

너희들은 신의 드리시티를 받을 가치가 있게 되었다. 이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너희는 부양 받을 가치가 있게 되었다. 너희는 타고난 권리로 불멸의 순수성을 차지했다. 이런 이유로 너희가 타고난 권리는 얻기가 결코 어렵지 않고, 쉽게 달성된다. 너희는 권리를 가진 자녀가 된 것을 경험했으므로 너희에게는 순수성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다. 순수성이 어려운 자들은 많이 동요된다. 순수성은 자아의 종교다. 그것은 너희가 타고난 권리이므로 늘 쉽게 여겨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왜 도망가느냐? 그들에게는 순수성이 어렵다. 이 권리를 갖지 못한 그런 영혼들에게는 그것이 틀림없이 어려울 것이다. 권리를 가진 영혼들은 오자마자 순수성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들의 권리라는 것과 그러므로 자기들이 반드시 순수해져야 한다는 결의에 찬 생각을 즉시 가질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순수성에 이끌릴 것이다. 나아가는 동안에 마야가 생각이나 꿈의 형태로 시험하려고 온다면, 그런 경우에 권리를 가진 영혼들은 지식으로 충만하므로 두려움이 없을 테고 도리어 지식의 힘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바꿀 것이다. 그들은 생각 하나를 가진 데서 여러 개의 생각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뭔가의 흔적을 그 자손의 형태로 변환시키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게 자손들이다. 물어봄으로써 긴 줄을 형성한다는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자손을 만든다. 뭔가 왔다가 영영 가버린다. 그것은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며 너희가 그것을 통과하자마자 끝난다. “마야가 왜 왔지? 어디서 온 거야? 마야는 여기서 왔고 저기서도 왔어. 마야는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마야가 온 거지?” 이런 자손들이 없어야 한다. 오케이, 마야가 왔다. 그러니 그녀가 앉게 놔두지 마라! 그녀를 쫓아버려라! 만일 “어째서 마야가 왔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앉을 것이다. 마야는 너희가 전진하게 만들고 너희를 시험하려고 왔다. 그녀는 너희들이 클래스에서 발전하게 만들고 너희들에게 경험을 주기 위해서 왔다. “마야가 왜 왔을까? 그녀는 이렇게 왔고 저렇게 왔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마야가 그런 형태도 역시 가졌나? 그건 붉고, 그건 초록색이고, 그건 노랗다!” 라고 생각한다. 너희들은 이런 확장으로 들어간다. 이런 확장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저 그걸 극복해라. 단지 우등으로 합격해라. 너희에게는 지식의 힘이라는 무기가 있다. 너희는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이며, 트리칼다르시, 트리베니 (세 강의 합류)다. 너희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나? 그렇게 금세 겁내지 마라! 너희들은 개미 한 마리만 와도 무서워한다. 너희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생각한다는 것은 마야에게 환대를 베푼다는 뜻이다. 그러면 마야는 그곳을 집으로 삼을 것이다. 길을 걷고 있을 때 뭔가 더러운 것을 보았다면 너희는 어찌 하겠느냐? 너희들은 거기 서서 “누가 이걸 여기에 버렸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게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겠느냐, 아니면 옆으로 비껴나 계속 움직이겠느냐? 너무 많은 낭비적인 생각의 후손들이 생겨나게 하지 마라. 처음부터 그 형태를 끝내라. 처음에는 그것이 1초의 문제인데, 그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달이 걸리는 뭔가로 확장시킨다. 그러다 한 달 뒤에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너희는 그것이 단 1초의 문제였음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깊숙이 들어가라, 상황의 심연이 아닌 지식의 심연으로 들어가라. 밥다다는 그렇게 고귀하고 더없이 귀중한 보석들이 작은 먼지 티끌을 갖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보석들을 갖고 놀아야 마땅한 이 보석들이 실제로 먼지 티끌을 갖고 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보석이니 보석들을 갖고 놀아야 합당하다.

밥다다는 유달리 귀여워하는 사랑으로 너희를 부양해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먼지 티끌을 가지고 노는 광경을 그가 어찌 차마 볼 수 있겠느냐? 너희는 더러워져서, “이젠 저희를 씻겨 주소서, 우리를 씻겨 주세요!”라 한다. 너희들은 또 두려워진다. 난 이제 뭘 해야 하나?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나? 너희들은 어째서 진흙을 갖고 노느냐? 그것도 땅에 있는 진흙 조각들 아니냐. 그러니 항상 너희 각자의 가치를 알아라. 앗차.

전체 사이클 내내 더없이 귀중한 그런 영혼들에게, 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 있는 영혼들에게, 신에게 부양 받을 가치 있는 영혼들에게, 순수성이라는 권리를 타고난 영혼들에게,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는 방법으로 늘 성공하는 영혼들에게, 더없이 귀중한 보석이 되어 항상 보석들과 노는 왕가의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그룹들을 만나심:

너희는 언제나 아버지의 눈 속에 들어있는, 눈에 합쳐져 있는 영혼, 아주 가벼운 점이라고 여기느냐? 그래서 너희는 변함없이 점들이고 항상 아버지의 눈에 들어있는 점이 된다. 밥다다는 너희의 눈 안에 합쳐져 있고 너희 모두 밥다다의 눈에 들어있다. 눈 속에 오직 밥다다만 담고 있을 때 너희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한결같이 “나는 언제나 점이다”라는 이 의식으로 더불 라이트한 상태에 머물러라. 점에게는 무게가 전혀 없다. 의식의 이 형태는 너희가 끊임없이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눈 가운데를 보면 그저 하나의 점 (눈동자)뿐이다. 보는 것은 눈동자다. 그 점이 거기 없다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 그러니 항상 의식 속에 이 형태를 간직하고 날아다니는 단계를 경험해라. 밥다다는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의 행운을 보며 기쁘다. 현재는 미래의 복을 그리는 펜이다. 너희의 현재를 고귀하게 만드는 길은 언제나 연장자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너희 스스로 변하는 것이다. 이 특별한 미덕으로 너희의 현재와 미래의 행운이 드높아진다.

2) 행운의 별이 너희 각자의 이마에서 빛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항상 반짝이고 있느냐? 그것이 더러 깜빡거리지는 않을 테지? 항상 켜져 있는 빛인 아버지와 함께 너희 역시 늘 켜져 있는 별이 되었다. 이를 경험하느냐? 바람이 때때로 등잔불이나 별빛이 깜빡이게 만들지 않느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는 곳에서는 그 별이 영원히 반짝이고 그것이 깜빡거리지 않는다. 전등불이 깜빡거릴 때는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꺼버린다. 것처럼

여기서도 변함없이 반짝이는 별들이 있다. 너희는 지식의 태양 아버지에게서 끊임없이 빛을 받아서 남들에게 빛을 보내준다. 너희는 항상 봉사하는 데 대해서 열성과 열의를 가진다. 너희 모두 고귀한 영혼들, 고귀한 아버지의 고귀한 영혼들이다.

기억의 힘으로 성공은 쉽게 달성된다. 너희가 기억과 봉사를 함께 하는 그 정도에 따라, 기억과 봉사의 그 균형은 자동적으로 너희가 변함없는 성공을 위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강력한 기억의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강력한 영혼들을 불러내고 너희는 성공을 달성한다. 로킵한 작업은 단지 그것을 위해서 뿐이지만 참된 사랑은 아버지와 봉사를 위한 것이다. 로킵한 일도 역시 단지 봉사를 위해서이며 그것은 너희의 애착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시에 따라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손을 가진다. 끊임없이 행복해하며 노래 부르고 춤춰라, 이것이 봉사하는 수단이다. 너희의 행복을 보면 남들도 행복해질 테고, 이 봉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밥다다가 끊임없이 너희 자녀들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대 기부자가 되는 그 정도만큼 너희의 보물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대 기부자가 되어서 너희의 보물들을 늘려라. 대 기부자가 되어 많이 기부해라. 이렇게 주는 것은 사실 받는 것이다. 뭔가 좋은 것을 받을 때 너희는 그걸 남들에게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너희의 행운을 보며 항상 행복해라. 너희들은 참으로 엄청난 행운을 받았다! 너희는 집에 앉아있으면서 신을 찾았다!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행운을 의식 안에 간직하고 행복하게 지내라! 그러면 슬픔과 평화롭지 못함은 영원히 끝날 것이다. 너희는 행복의 화신, 평화의 화신이 될 것이다. 신이 친히 행운을 지어준 자들은 참으로 고귀하다. 이처럼 합류시대에는 매일이 새로운 열성과 새로운 열의의 날이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에게서 열성과 새로운 열의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계속 전진해라.

너희가 현재 하고 있듯이 단지 나아가는 것에 행복해하지 말고 너희가 변함없이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열성과 새로운 열의를 항상 가져라. 매일이 새롭다. 너희는 반드시 너희 스스로와 봉사에서 이런저런 유형의 새로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너희의 자아에 대해 열성과 열의를 더 많이 가질수록 너희는 계속해서 새로운 터칭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다른 일들로 항상 바쁘면 그럴 때는 너희가 새로운 터칭을 받을 수 없다. 처닝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새로운 열의를 가질 것이다.

굴레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과 기억을 주시면서.

굴레 속에 있는 자들의 기억은 늘 아버지에게 도달하고 밥다다는 굴레에 있는 자들에게 항상 요가를 하라고, 즉 기억하려는 그들의 사랑을 불처럼 만들라고 이른다. 사랑이 불처럼 되면 만사 모든 것이 불에 탄다. 그러면 사랑의 불 속에서 그 굴레들은 끝나고 너희 역시 해방된 영혼이 되어 너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든 성공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고 있으며 사랑을 가진 자들의 기억은 바바에게 도달한다.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너희는 사랑을 받지만, 그러나 이젠 너희의 기억이 강력한 (거센) 불처럼 되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여기에 직접 오게 되는 날도 올 것이다.

축복: 늘 영적인 단계에 머물며 남들 역시 영혼으로 보는, 영적 장미가 되어라. 영적인 장미는 항상 영적인 향기를 품고 있는 이들이다. 영적인 향기를 머금은 자들은 어디서 누구를 보든, 그들은 몸을 보지 않고 오직 영혼만 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늘 영적 단계에 머물며 남들을 영혼으로 보라. 아버지가 높은 가운데 최고로 높으니 그의 정원 역시 높은 중에서 가장 높고 자녀인 너희들은 그 정원의 영적인 장식, 영적 장미들이다. 너희들의 영적인 향기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슬로건: 너희가 행동 수칙 중 하나를 어김으로써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때 그것은 너희의 슬픔의 계좌에 쌓일 것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